

姜시장 흠집내기 일관 씹쓸한 마무리

광주시의회 '캠코'특위 조사 마무리... “감사원 결과 못 벗어나” 지적도

3D컨버팅(3차원 입체영상 변환) 분야 한미합작투자사업(법인명 캠코)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인 광주시의회 행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 특위)가 지난 21일 캠코를 총체적 부실사업으로 결론 내리고 68일간의 특위활동을 마무리했다.

조사특위는 이날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행정은 민간 부분이 잘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인데도 시가 100% 출자한 광주문화콘텐츠 투자법인(GCIC)을 설립한 것은 민간 영역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어 “국제합작사업은 수백억 원의 혈세 투여가 예상되는 만큼

검증과 검토가 필요했지만 미국 측 사업자(K2AM)의 허위·과장된 정보에 의존해 서급하게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이에 따라 재발방지 방안 마련, 책임자에 부당이득·구상권 청구,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감사, 광주문화콘텐츠 투자법인 김병술 대표·강왕기 전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장 등의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시장에 대해서도 “최종 결정과 추진 과정의 총괄 책임자로서 지도·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이 있다”며 “광주시의회의 의장은 변호사 자문을 거쳐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조사특위의 이번 조사내용과

결과는 이미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애초 광주시 투자유치 전반에 걸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특히 일부 위원들이 ‘캠코’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상임위원 행사위에서 다뤄도 될 사항을 굳이 특위까지 구성해 조사를 해야하느냐는 일부 의원들의 ‘특위 무용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특위 위원 10명 중 4명이 사퇴하는 파문을 겪기도 했다.

또한, 조사특위 조사과정에서 자신들이 합의를 이끌어 낸 미국 기술세트 참여 거부도 비난을 받았다.

문상필 특위 위원장이 기술세트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미국 측과 광주 측의 합의 아래 성공할 것’이라며 마치 광주시와 미국 측 사업자가 ‘짜고치는 사업’이라고 단정할 정도 너무 지나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시장을 법적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장에게 요구한 것은 행북한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라며 “시자문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의뢰한 결과 시 정책의 성패가 법적 책임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우리나라 헌정사와 지방자치 역사상 그 선례가 없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금메달 리스트와 스메싱

23일 개관한 광주시 장애인 탁구훈련장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이 런던 장애인올림픽 탁구 금메달 리스트인 김영건(광주시청 소속) 선수와 경기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기다렸다는듯 동구청장 보선 후끈

손재홍·양혜령·임택·홍기월·조영복 등 거론돼

민주 “시민 지지후보 공천”속 무소속 선전 가능성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법정 구속된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이 지난 20일 청장직을 사퇴하면서, 보궐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이번 동구청장 보궐선거는 ‘대선’에 물결 가능성이 크지만, 지역경가에서는 벌써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고, 후보 선출방식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누가 거론되나=현재까지는 3선 시의원인 손재홍 의원이 높은 인지도에 힘입어 출마가 유력시된다.

손 의원은 최근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과 스친십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양혜령 전 시의원도 조직을 추스르는 등 출마 재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과 양 의원은 과거 선거와 관련해 고소·고발을 하는 등 ‘정치

적 양속 관계’라는 점에서 두 사람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 청장과 경선에서 맞붙었던 조영복 전 동구의회의장도 조직을 다시 꾸리며 물밑 행보를 활발히 하고 있으며, 홍기월 전 동구의회의장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북구청장 선거와 북구 국회의원 선거에 얼굴을 내밀었던 오영근 성형외과 원장이 최근 출마를 위해 중앙당을 자주 방문하고 있고, 동구지역 행사 등에도 얼굴을 내비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임

택 전 동구의원과 임흥채 전 민주당 광주시 사무처장도 거론되고 있으며, 시민단체 출신 인사 등의 출마도 점쳐진다. ◇선거 전망=현재로서는 아관, 특히 민주당 공천자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공천이 곧 보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등 공천방식, 대선 주자·당 지도부와 역학관계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공적인 지역위원장들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유·불리도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구 10만여 명에 불과한 동구지역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조직력과

대선 투표 시간연장 캠페인

광주·전남 ‘2013포럼’

광주·전남지역 시민 정치단체인 ‘2013 포럼’(상임공동대표 강행욱)은 오는 12월19일 치러지는 18대 대선 투표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는 ‘to PM 10’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2013 포럼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투표율은 46%로 OECD 회원국 평균 7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대의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저조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표시간대를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3 포럼은 정치에 대한 혐오나 불신으로 인한 투표 포기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대량 양산과 서비스업 증가 등으로 투표일에도 근무할 수밖에 없는 유권자들이 많아진 것도 낮은 투표율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의원 업적 홍보 선거법 위반

광산구 계약 공무원 2명 사직

특정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광주 광산구청 계약직 공무원 2명이 사직했다.

광산구는 23일 민원실장 정모(48·전임계약직 다급)씨와 홍보팀장 이모(41·전임계약직 다급)씨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11 총선 이전 의정보고회 등에서 특정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각각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은 퇴직해야 하며, 정처인은 당선 무효가 된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참신성 등에 따라 의외의 민주당이 아닌 무소속 후보 등이 선전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지난 4월 총선 때 전 동장(洞長)이 투신사망 하고 현재 국회의원, 동구청장, 구의원 등이 사법처리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판을 쳤다”는 오명을 뒤집어쓴 동구이기 때문에 새로운 선거문화에 대한 기대감도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장병만 광주시장 위원장은 23일 “지금까지 후보 선출방식 등에 대해 어떤 방침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민들이 지지하는 후보로 공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통합당 광주시당은 동구청장과 동구의회 기초의원(나선거구)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접수를 시작했다. 광주시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박해자)는 지난 22일 1차 회의를 열고 22일부터 10월4일까지 1차 예비후보 공모기간으로 정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현장과 시각 ■

원칙과 명분 다 잃은 광주시



박진표(사회부 기자)

할 어등산 관광단지가 사실상 일부 골프장 이용객의 전용물로 전락하게 되면서 지역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근 광주시가 ‘(주)어등산리조트측이 골프장을 먼저 개장하는 대신 유원지와 호텔 등 사업부지를 시에 넘기는 내용 등을 담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는 어등산에 시민 휴식공간과 숙박시설, 그리고 수역사업인 골프장을 동시 개장한다는 애초 계획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난 4월 간부회의에서 “어등산의 핵심은 테마파크(유원지)를 잘 만들어 시민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며, 골프장은 인센티브였을 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불과 반년도 안돼 사업자측이 주장해온 골프장 선(先) 개장안을 수용했다. 법원의 조정안을 준준한다는 원론적 입장과 지역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러는 점을 내세웠다. 시는 “분쟁이 이어지면 사업자는 매년 100억원이 넘는 이자손실 등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시는 시민 휴식처를 만드는 것 보다 사업자의 손실이 더 걱정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시가 공격하게 내놓은 사업자의 투자손실 주장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주)어등산리조트의 실제 주인인 금광기업은 그동안 어등산관광사업의 사업주체가 4번(삼능→금광→모아→금광)이나 바뀌는 과정에서 2번째 사업자로 나섰다가 포기하고, 마지막 사업자로 다시 뛰어든 업체다. 이익을 우선하는 사기업에서 과거 손했던, 뺏속까지 알고 있는 사업을 다시 불잡았다는 것은 돈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사업자는 무슨 배짱인지 공동 개장해야하는 핵심사업 개발을 뒷전인 채 1100여억원(사업자 주장)을 투자해 골프장만 짓더니 우선 개장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논리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과 광주시 중 한곳이라도 ‘동시개장’인 사업원칙을 고수한다면 큰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기업 스스로 위기를 만든 꼴이 됐다.

다행히(?) 법원에서 각종 명목을 달아 골프장 선 개장안을 내놓고, 광주시도 지역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잘 짜여진 각본같기도 하고, ‘눈가리고 아웅식’의 행태’로도 오해받기 충분한 대목이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원칙과 명분을 모두 잃고, 행정의 신뢰마저 추락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원칙면에선 향후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도 사업자의 입맛에 맞게 원칙이 바뀔 수 있다는 인종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 이번이다. 명분면에선 지역사업자들이 자급난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지연 등을 요청할 경우 시장 논리에 따라라며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잃게 됐다는 점이

다. “특권과 반칙없는 세상”이란 구호를 들고 16대 대통령에 당선됐던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어록 한 대목이 떠오른다. “원칙이 반칙에 의해 좌절되고, 상식이 특권에 의해 훼손되는 사회에서는 신뢰가 피어나지 않는다”

/lucky@kwangju.co.kr

더 큰 세상, 깊은 감동의 서비스
다와옥션
www.dawaauction.co.kr

다와옥션 부동산 경매학원

호남유일의 정통
경매학원!
불만족시 수강료
전액환불!

실질기본반 : 매주 수요일

오전 : 10시 30분/오후 : 저녁7시
(3개월 16주 과정 25만원)

강사 : 이 정석 교수(저자직강)

목욕탕강 : 매주 목요일

오후 : 7시(교육참가시 확인요망)

(교재비포함 수강료는 1~2만원)

과목 : 세무,민법,부동산정책,기타
기본경매의 보수교육

◎수시모집중(기수별 선착순 30명)

◎국내유명강사 초청 특강(강좌외)

☎ 문의 062-352-8589 (010-8004-6767)

남구 월산동 통고개역 1번 출구
신원은행 4층(구, 전남경찰청 4거리)

이지공인중개사

(금매)광주북구 오치동 아파트 밀집지역내 5층상가(대지166p, 건평 470p,5층은 주택)매가 17억(보.용.6억 포함), 월수940만

임야,토지,전답

- ▶광주 동구 서교동 벤처배후단지 대지1014평(3353㎡)사정상 금매 대로 35m 도로접합, 투자가치높을, 매가121억
- ▶최순군 이양면 초말리 산14-1임 0177,727㎡(23.512평) 매가 평당 5천원
- ▶광주 서구 매월동 자연녹지 46,596㎡ (1,412평) 매가평당100만
- ▶나주시 문평면 잡종지 6차선 도로450M 접합 15,638㎡ (4,730평) 매가 평당20만원
- ▶곡성군 삼기면 월경리 임야 5만 천평, 평당1만원 절터 및 연수원 부지적합
- ▶광주 서구 매월동 공구상가부근 68,433㎡ (2,550평)매가평당90만
- ▶장성 서산면 대곡리 대528평(계화관리지역 도로여건중음)
- ▶화순 동면 서성리 호수부근 전원주택 펜션부지(전망 아주좋음)대 210평 매가 평당 70만
- ▶무안군 운남면 연리 계획관리지역 2700평 2차선 도로120m접,지 대늘을 매가평당15만
- ▶장성 남면 2중주거지역 대지660㎡ (200평)평당50만 청구보증금 정적합

기타물건 다량보유

매매,교환(토지,상가,임대)

- ▶장성 남면 2중주거지역 대지660㎡ (200평)평당50만 청구주택공정적합
- ▶담양 봉산면 대추리 과수원부지 대형차량 진입가능, 청고 공장,전원주택 적합
- ▶함평 나산면 초포리 12,990㎡ (3,930평)도로접,공장청고 전원주택특적합
- ▶나주군 봉황면 덕곡리 2차선 도로접, 전,임106,100평 매가195천만
- ▶광주 동구 수기동 대지 590평 평당 400만 중심상업지역 위치좋은
- ▶곡성군 오산면 조양리 매실밭 1,392㎡ (421평)년수95~6백만, 주말농장 전원주택 가족유지등 매가 3,400만
- ▶장성읍 덕진리 대로면 공장설립허가지역 청고, 전원주택,공장특적
- ▶합, 전10,100평 매가 평당15만
- ▶영광군 자룡차 정비공장 대지670평 건평300평 20년 운영 자동차 검사점등 매매 6억(용자 195천 포함)
- ▶장성 북하면 와수리 백암사임구 모텔 및 식당 대800평 현성일종 매가17억
- ▶서구 화정동 연수사거리부근 상가주택 준주거지역 대90평,건148평 보7천만 월540만 매7억
- ▶서구 중앙동 상업지역 최고상권 대121평 건264평 보1998천만,월수1150만,매1895천만 지하1 지상5층
- ▶광산구 흑석동 대로면 상가 매가 22억(용,보5억포함)월수1400만
- ▶동구대인동 대로면 사거리교대상가 매가12955천만(용,보5억2천포함)월수약11,100만

전화 : 062-268-2834
HP : 010-6460-2834

랜드피아 공인중개사

상 가 임 대

각하동 홀플러스인근

병의원, 사무실 적합

* 4~5층 각 130평

* 6층 110평

보5천 / 월200만

* 지하 140평

(임대가 및 조건조정가)

수익성 부동산매매

랜드피아오피스텔 매매

* 15평 ~ 29평

9~12% 높은수익률

치령동 근린상가 매매

* 매가29억 ~ 100억대

물건다량 보유

8% ~ 10% 수익률

010-9731-8949
(치령동랜드피아 O/P 1층)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할〉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가주주택(원룸, 투룸, 소리룸)

〈토지구할〉

- 지역 :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300평, • 용도지역:자연녹지 • 용도 : 주차장
- 청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를 4922천 매가 895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90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8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접, 농지전용 원로, 매매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공영 청고용도로 적합
- 비어둔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의 매